

김민석 총리

‘2025 APEC 정상회의’ 현장근무자 격려

- 현장 근무자들의 노고 격려, APEC 성공을 위한 선제적·능동적 점검 당부

□ 김민석 국무총리(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(APEC) 정상회의 준비위원장)는 10.10(금) 오후 경주를 방문하여 긴 추석 연휴에도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꼼꼼하게 준비해온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하고, 일부 정상급 숙소(PRS)와 정상회의장 등 인프라를 점검하였다.

* (참석)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 기획실장, 대통령경호처 정책관, 경호안전통제단 기조실장, 경북도지사, 경주시장, 경북 APEC 준비지원단장, 경북대학교 병원장, 동국대 경주병원장, APEC 응급의료지원단 응급상황실장, 대한상의 APEC총괄운영실장, 행사대행 PCO(인터컴) 사업총괄 등

□ 김 총리는 경북 APEC 준비지원단 사무공간을 방문하여 외교부, 경북도, 경북 소방청, 경북 경찰청, 대한상의 등의 현장 상황 근무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, 남은 기간동안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
* (주요 참석 기관) 외교부 APEC 준비기획단, 경북 APEC 준비지원단, 경북 APEC 소방 안전기획단, 경북 경찰청 APEC 준비기획단, 대한상의 APEC추진단 등

○ 김 총리는 “APEC의 실제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현장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총체적으로 점검하느냐에 달렸다”면서 “인프라, 행사장, 숙소, 서비스, 경호, 안전, 음식 등 모든 분야의 세심한 부분까지 선제적, 능동적, 자발적으로 점검해달라”고 강조하였다.

□ 이후 김민석 국무총리는 일부 정상급 숙소(PRS), 경주 화백컨벤션센터(HICO), 동국대 경주병원 등 APEC 정상회의 준비 현장을 둘러보며 행사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하였다.

○ 김 총리는 코오롱 호텔과 소노캄 호텔에 조성된 정상급 숙소(PRS)를 돌아 보고, APEC 회원경제체 정상들이 머무르는 동안 한국의 품격을 느낄 수 있도록 시설과 서비스 전반에 있어 완벽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○ 이어서 김 총리는 정상회의장과 다양한 양자회담장이 마련되는 화백 컨벤션센터를 찾아 APEC 회원경제체 정상들의 동선 등을 사전에 점검 하고, 참가자들이 불편함 없이 회의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 공간을 조성해야 함을 강조하였다.

○ 마지막으로 동국대 경주병원에서는 APEC 정상회의 응급의료 준비상황을 보고받고, 지난 9월 조성한 VIP 전용 병실과 확장공사를 완료한 응급의료 센터 시설을 점검하였다. 김 총리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.

□ 금번 현장점검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행사 전반에 걸쳐 세심한 준비가 느껴질 수 있어야 한다면서, 특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점검하고 문제점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현장 근무자들의 역할을 강조하였다.

○ 김 총리는 남은 2주여간 집중적으로 경주 APEC 현장점검을 이어나가면서 마지막까지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완성도를 높여나갈 예정이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	책임자	팀 장	정재상 (02-2100-2109)
		담당자	사무관	김영주 (044-200-2135)